



##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7-13

2022년 1월 2일 설교

크리스 식스 목사

### 설교 소개

2022년 첫 설교를 위해 New City Catechism 을 통한 1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교리문답” 은 ” 가르치다” 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katacheo** 에서 유래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약 500년 전 독일인 목사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진정한 성경 신학으로 되돌리도록 도왔습니다.

루터는 기본적인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 질문과 대답을 사용하는 교리문답을 썼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한 이유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529년 마틴 루터는 ” 일반인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많은 목사들이 거의 전적으로 무능하고 가르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에 다니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루터는 심지어 독일의 일부 목사들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형제 클레멘트도 같은 이유로 여기 미국에서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클레멘트는 중앙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목회자들이 신학과 성경적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문답에서 찾을 수 있는 종류의 진리입니다.

One Voice Fellowship 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기독교인으로 자랐지만 다른 문화와 신학적 이해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기독교인으로 자라지 않았고 여전히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 진리에 대한 훌륭한 요약이기 때문에 올해 New City Catechism 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구주에 의해 연합된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했듯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New City Catechism에는 52개의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52개 모두의 사본을 귀하의 모국어로 제공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첫 일요일,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질문 1: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있어서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구절을 봅시다.

### 로마서 14:7-13 (ESV)

7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느니라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 어찌하여 형제를 심판하느냐? 아니면 너, 왜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11 기록된 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 그런즉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리라

13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장애물이나 장애물을 형제 앞에 두지 않기로 작정합시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있는 진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값은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Point 1.**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Point 2.**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Point 3.** 희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다.

**Point 1.**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7 절과 8 절에서 말하는 바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7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느니라.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성구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8 절의 마지막 네 단어인 ”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를 기억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국 문화는 모든 사람이 자율적이라는 신화를 조장합니다.

그것은 ” 자기 주도적” 을 의미하는 큰 단어입니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면 우리 모두는 자율적이라는 생각을 좋아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할 수 있다면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일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은 환상입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의 하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당신 자신의 욕망의 종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감정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교만과 정욕이 내 삶을 지배하는 힘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은 교만이나 욕망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자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 장 15, 17, 19 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7:15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노니 의를 행하고자 하여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일을 행하노라

17 그러므로 나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는 죄입니다.

19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차를 몰고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율적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니다.

당신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죄나 예수님에 의해 인도됩니다.

우리의 삶은 죄나 예수님에 의해 인도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죄의 힘이 우리에게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의 혈관에 주입되었고 죄의 권세가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음 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14 장 19 절을 보십시오.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목적을 위해” 는 ” 이 목적이나 이유를 위해” 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죄의 권세를 죽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부활하고 새 생명을 받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율적인 권력이 아니다.

독립된 권력이 아닙니다.

9 절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말합니다.

주님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예수님은 둘 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의 용서를 위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그 진실이 2 번 포인트의 이유입니다.

## **Point 2.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사람과 국가는 사물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종류의 갈등에서 면역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유대인 배경의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있었습니다.

술과 육식, 명절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이와 같은 종교적 논쟁은 매우 분열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여러 회중을 형성하라고 말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별도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같은 구주로 연합된 한 아버지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영원한 진리는 그들의 차이점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One Voice Fellowship** 에서 특별한 종류의 교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여러 나라와 문화의 신자들의 교회.

우리는 또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방문객들과 그분을 삶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민감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것입니다.

일부 의견은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의 중심에는 기독교의 중심 신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참된 제자는 이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을 받습니다.

또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난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사도신경의 모든 것은 이 중심 원에 속합니다.

로마서 14 장 10 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핵심 진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센터 서클 밖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닌 몇 가지 예입니다.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도 괜찮습니까?

지구의 나이는 6000 년입니까 아니면 60 억년입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매주 성찬식을 거행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따로 기도해야 합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질문에 다르게 대답하는 형제 자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10 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하는가? 핵심이 아닌 일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다음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고 말합니다.

나는 바울이 두 번째 사람에게 ” 너는 왜 너를 심판하는 이 형제를 심판하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서 평화보다 갈등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논쟁하고 다른 진영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문화나 의견으로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One Voice** 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가 가르치는 핵심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일치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해 **New City Catechism** 을 진행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형제 자매로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10 절**에서 우리를 심판할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형제 자매가 틀리거나 어리석다고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서로 판단하기를 더디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1 절**을 보겠습니다.

**11** ”기록된 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서 **45 장 23 절**을 인용합니다.

친구 여러분, 언젠가는 모든 인간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에 대한 진리를 혀로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날 지상에는 많은 인간 왕, 대통령, 법정에 있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최고 통치자는 한 분뿐입니다.

**12 절**과 **13 절**을 보십시오.

**12**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리라.

**13**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장애물이나 장애가 되는 것을 형제의 길에 두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자

우리가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것보다 형제나 자매를 더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사랑은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12 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회계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진정한 재판관입니다.

핵심적인 신학적 원리에 대해서는 옳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신학에 대해 틀리더라도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포인트 3 으로 넘어갑시다.

### **Point 3. 희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다.**

저와 함께 로마서 14:8-9 을 다시 보십시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죽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 주를 위하여 산다” .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함으로써 ” 주님께 살기” 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돈과 시간과 몸과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 주를 위하여 산다” .

고린도전서 6:19-20 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사신 바 됨이니이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보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정부는 신자들의 신앙을 이유로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와 불에 처형되었고 심지어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와 희망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 주님께 죽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주변 세계에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이 교회의 성장을 죽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반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인도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모든 인도인이 힌두교도여야 한다고 믿으며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감옥에 가둡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놀라운 사역은 최근 그들이 인도 밖에서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역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나라에서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 우리가 죽어도 주께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나는 시카고에 있는 삼촌의 장례식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바쳤을 때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되었습니다.

토요일에 그의 장례식에 갈 수 있고 삼촌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삼촌이 예수님이 ”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이심을 이해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영원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이 진실이 2022 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2022 년에 우리는 당신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당신께 우리 삶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즉 사는 방식과 죽는 방식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그 진리에 따라 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